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市民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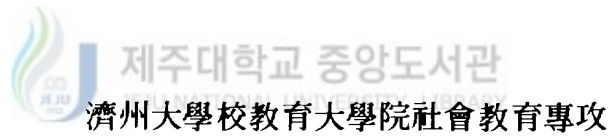
社會教育 專攻

金 星 美

1988 年度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市民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提出者 金星美

指導教授 金恒元

1988年 月 日

---

金星美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8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 審 (印)

---

副 審 (印)

---

副 審 (印)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目 次

I. 序 論 .....	1
II. 理論的 背景 .....	3
1. 市民意識의 概念 .....	3
2. 民主市民으로서의 態度 .....	5
3. 政治態度 .....	8
III. 研究方法 .....	11
1. 調査道具 .....	11
2. 調査對象 및 實施 .....	12
3. 資料處理 .....	13
IV. 結果 및 論議 .....	14
1. 領域別 分析 .....	14
2. 背景變因에 따른 市民意識의 差異 .....	23
V. 要約 및 結論 .....	39
參考文獻 .....	42
英文要約 .....	44
附 錄 .....	47

## 表 目 次

〈表 1〉 調査道具の構成内容 및 問項數 .....	11
〈表 2〉 地域別 質問紙 實施 對象者 數와 回収現況 .....	12
〈表 3〉 背景變因別 標準 人員數 .....	12
〈表 4〉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全體 反應結果 .....	15
〈表 5〉 政治態度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	18
〈表 6〉 公共意識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	23
〈表 7〉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 .....	24
〈表 8〉 學年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 .....	24
〈表 9〉 父母의 經濟生活程度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 .....	25
〈表10〉 父母의 居住地別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 ·	26
〈表11〉 父母의 職業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 ····	27
〈表12〉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 .....	29
〈表13〉 學年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 .....	30
〈表14〉 父母의 經濟生活程度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 .....	31
〈表15〉 父母의 居住地別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 .....	32
〈表16〉 父母의 職業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 .....	33
〈表17〉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 .....	34
〈表18〉 學年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 .....	35
〈表19〉 父母의 經濟生活程度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 .....	36
〈表20〉 父母의 居住地別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 .....	37
〈表21〉 父母의 職業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 .....	37

## I. 序 論

한 나라의 발전방향과 속도는 그 나라의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 좌우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價値觀 내지는 意識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이후 韓國社會는 政治, 經濟, 文化의 모든 영역에서 民主社會를 추구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6·25의 민족적 수난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급속하게 추진되어온 공업화의 정책은 傳統社會 및 文化構造의 解體와 더불어 韓國人의 意識構造 및 價値觀을 크게 변질시키게 되었다. 더욱 1980年 후반에 와서도 성숙한 民主社會와 産業社會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韓國의 狀況에서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과 극복의 문제가 절실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과제를 教育的인 側面에서 고려해볼 때, 民主國家의 發展을 위한 「훌륭한 民主市民의 養成」과 직결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요청되고 있다.

學校教育 중에서도 社會科教育은 다른 어느 교과목보다도 社會生活에 관한 「市民으로서의 資質」 向上이라는 과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sup>2)</sup> 韓國의 狀況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민의 資質」, 「市民性」에 관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플라톤(Platon),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s), 마키아벨리(Machiavelli), 루소(Rousseau), 로크(Locke) 등에 의해서 강조되었고 그 후에도 이러한 과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sup>3)</sup>

民主市民 資質의 基本條件은 자기가 속해있는 社會現象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개인이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合理的인 意思決定能力이 있어야 한다.

1) 田淑子, "社會發展과 社會科教育의 基本方向," 「社會科教育」 20호, 1987, pp.94~95.

2) 車京守, "高等學校 社會科教育의 目標로서의 「市民의 資質」의 概念研究,"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28」 1984,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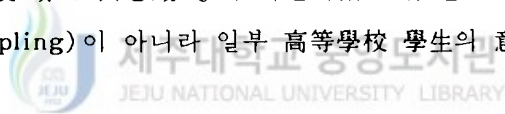
3) B. G. Massialas,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forth Ed. (New York: Macmilian Company, 1969), p.124.

그래서 民主市民이 갖추어야 할 知的·道德的 特性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규정해 보는 것은 社會科의 基本方向을 설정하는 것과 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앞으로의 民主發展과 관련된 市民意識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本 研究의 目的은 濟州島 高等學生들의 市民意識을 조사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民主主義 發展과 社會科教育의 發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社會科教育의 方向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우선 市民意識의 概念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民主市民으로서의 바람직한 態度를 알아보고, 또한 이들이 갖고 있는 政治意識을 分析하기 위하여 政治態度에 대한 概念을 정의해 보았다. III장에서는 研究方法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으며, IV장에서는 연구자료를 가지고 領域別·背景變因別로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 政治態度 그리고 公共意識에 관한 分析을 실시하였으며, V장에서는 I장부터 IV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 보았다.

이 研究는 크게 두 가지의 制限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市民意識이란 廣義의 뜻으로 「民主市民의 資質」을 뜻하는 것이나 本 研究에서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과 政治態度 및 公共意識 등에 국한시켰으며, 둘째 濟州島 全體學校에 대한 표본추출(Sampling)이 아니라 일부 高等學校 學生의 意識調査에 국한시켰다는 점 등이다.



## II. 理論的 背景

### 1. 市民意識의 概念

市民(citizen)이란 "18세기의 政治革命 이후 産業社會의 새로운 중상계급으로 생성된 것이며, 自由, 平等, 個人主義思想과 理性合理主義 理念을 그 내용으로 하는 概念으로<sup>4)</sup> 大衆化한 自由·平等社會의 主權者로서의 公民을 뜻한다.<sup>5)</sup>

한 나라의 政治實現과 國家發展에 필요한 市民의 資質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sup>6)</sup> 市民의 資質(Citizenship), 또는 市民精神이라는 概念은 매우 다양하여 그 뜻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 핵심은 근세사회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民族的 革命을 일으키고, 그 이후 이들 國家를 發展시켜 온 市民들의 知的인 能力이나 態度, 價値觀, 信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략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民主國家를 發展시키기 위한 民主市民의 能力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된다.<sup>7)</sup>

메리엄(Charles E. Merriam)은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민훈련에 관한 諸 研究를 검토, 市民意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市民性(Citizenship)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sup>8)</sup>

첫째, 애국심과 충성심

둘째, 社會의 諸法規에 대한 복종

셋째, 政府와 官吏에 대한 존경

4) 田淑子, 前掲論文, p.101.

5) 朴泰岩, "社會科의 性格과 市民性 教育," 「대구교육대학 논문집 19」, 1983, p.17.

6) 沈義輔, "政治社會化의 課題와 政治教育의 方向," 「청주교육대학 논문집 23」, 1986, p.498.

7) 車京守, 前掲論文, p.59.

8) Charles E. Merriam, *The Making of Citize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1), pp.1~26.



네째, 政治生活의 諸義務에 대한 인식  
 다섯째, 어느 정도 최소한의 自制心  
 여섯째, 긴장에 처해 있을 때에 共同體의 要求에 대한 대응성  
 일곱째, 社會關係에 있어서 일반적 정직성  
 여덟째, 現存의 정부형태를 위한 理論的 根據를 이루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知識과 合意, 그리고 이러한 理論的 根據에 대한 비판의 한계성 유지  
 마지막으로, 他國國民과 비교하여 自國國民의 資質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 등이다.

로우롭스(Mark Roelofs)는 市民性의 概念을 보다 체계화하여 세 가지 類型의 態度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①公共의 행사에 대한 自負心과 參與, ②權威에 대한 도전과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주장, ③公共의 善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의지와 충성심의 세 要素이다.<sup>9)</sup>

한편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는 市民性의 資質에 관한 研究에서 政治的인 의무의 이행뿐 아니라 經濟的·家族的 의무도 강조하고 있으며,<sup>10)</sup> 民主市民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1)</sup> 첫째는 개인들이 속하고 있는 政治共同體에 대한 소속감(Sense of identity)이다. 이것은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국가의 현실상황과 정치적 권위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民主市民은 법을 준수하고 정책에 따를 줄 알며 필요할 때 참여할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주위 사람들의 人格을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社會的 信賴(Social trust)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과 妥協하여 나아가서 利益集團에 참여함으로써 政治的 決定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레인(Lane)은 市民的 資質이란 무엇보다도 市民이 지혜와 이해심을 갖고 政治世界에서 그들의 장기적 자제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역설하였다.<sup>12)</sup>

9) Mark Roelofs, *The Tension of Citizens* (New York: Rinehart, 1957), pp.1~30.

10) Gabriel A. Almond &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Boston and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63), p.120.

11) 金忠男, 「政治社會化와 政治教育」 서울: 法文社, 1982), pp.208~209.

12) Robert E. Lane, *Political man* (New York: The Free Press, Collier-Macmillan Ltd., 1972), p.229.

市民意識에 관하여 이상과 같은 諸脈絡에서 보아 市民의 役割에 대한 어린이의 知覺的 態度를 세 부분으로 구분한 오펜하임(A. N. Oppenheim)의 분류는 상당히 포괄적이라 볼 수 있다. 즉 그는 市民의 役割을 ①적극적 시민의 자질(선거 때마다 투표하고, 정당에 참여하는 등), ②소극적 시민의 역할(법률에 대한 복종, 세금의 납부 등), ③비정치적 시민의 자질(가정에 대한 충실성, 장례엄수 등)로 나눈다.<sup>13)</sup>

마시알라스(Massialas)도 市民은 수많은 資質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市民性을 바람직한 인간성이나 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훌륭한 市民은 知識의 所有는 물론 협동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民主主義 態度나 習性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sup>14)</sup>

따라서 「市民意識」 즉 「市民性」이란 단순히 성문화된 市民權과 政治的 機能—투표, 정치기구, 공직생활, 법적인 권한과 책임—등에 관련된 市民活動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生活方式, 共同生活의 性質을 의미하는 것으로 民主市民의 資質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즉 인간관계 및 사회적 활동에서 나타나야 할 바람직한 성품 또는 성격특성과 거의 동의의 폭을 갖는 것으로 市民性을 규정할 수 있겠다.<sup>15)</sup>

## 2. 民主市民으로서의 態度



民主市民의 基本條件은 자기가 속해 있는 社會現象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社會現象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價値探究를 통한 合理的 決定이 요구된다.<sup>16)</sup> 즉 훌륭한 시민은 과학적 결정을 내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

13) A. N. Oppenheim, "Civic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Democracy", Ed. Richard Rose, *Contemporary Political Soci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77), p.27.

14) B. G. Massialas, op. cit., pp.124~125.

15) 金蘭洙, 「民主市民教育의 方法」(서울: 현대교육신서출판소, 1969), p.31.

16) 田淑子, 前掲論文, p.97.

한다.<sup>17)</sup> 그런데 이와 같은 바람직한 市民으로서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교과목중에서는 社會科에서 그 주요 임무를 맡고 있다.<sup>18)</sup> 우리나라의 社會科教育에서도 民主國家 發展에 봉사하는 民主市民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世界人으로서의 韓國人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sup>19)</sup>

이렇게 볼 때 社會科 教育過程은 전통적으로 市民教育에 관련된 內容과 技能을 전달하는데 책임이 있어 왔으며,<sup>20)</sup> 하투니안(H. Michael Hartoonian)은 社會科 教師들이 잘 개발된 市民教育課程을 통해 노력해야 할 民主社會의 市民으로서 필요한 15가지의 目標를 제시하고 있다.<sup>21)</sup>

- (1) 학생들이 그들 자신이 價値의 중요성을 認識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학생들이 개인의 행동을 억제할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생들이 社會의 權威的 象徴에 대한 존경을 이해하고 선전할 수 있도록 한다.
- (4) 각 개인의 인간적인 권리의 확신에 대한 그들의 수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5) 社會的·政治的 決定에 의한 규칙과 과정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6) 우리 자신의 국가에 대한 기초적인 확신과 다른 국가들에서의 그것들과의 차이와 유사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7) 문제해결 상황에서의 合理的인 過程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合理的인 意思決定過程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8) 그들의 개인적 관점에 의문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추가되는 정보의 견지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17) Thomas L. Dynneson & Ricard E. Gross,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Social Studies: which is which?" *The Social Studies*, Vol.73, Sep/Oct, 1982, p.229.

18) 鄭世九外, 「社會科 探究授業」(서울: 教育科學社, 1982), pp.13~20.

19) 曹翰, "政治社會化와 社會科教育體系"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p.47~49.

20) Thomas L. Dynneson & Ricard E. Graoss, op. cit., p.231.

21) H. Michael Hartoonian, "The Social Studies: Foundation for Citizenship Education in our Democratic Republic," *The Social Studies* Vol.76, Jan/Feb, 1985, pp.6~7.

(9) 개인적 의견을 형성할 목적으로 갈등하는 관점들을 시험하고 의문을 가지는데 있어서 自發性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10) 그들의 行動에 대해 責任질 수 있도록 한다.

(11) 학생들이 관련된 어떤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작용에 대해 責任질 수 있도록 한다.

(12)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에 대한 존경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13)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와 필요에 대한 자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14) 集團決定에서의 개인적인 指導力을 수락하고 다른 사람들의 指導力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한다.

(15) 集團에서 함께 활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공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15가지의 民主主義的 態度는 社會科를 통해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市民教育研究(Detroit Citizenship Education Study)에서 研究對象 學校의 教育計劃作成의 지침으로 삼았던 훌륭한 市民의 다섯가지 중요 資質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2)</sup>

첫째, 훌륭한 市民은 民主主義의 理想에 열성을 다한다. 그는 民主的 生活方式에 합치되는 價値觀을 신봉하고 이들 價値觀에 따라서 자기행동을 취한다.

둘째, 훌륭한 市民은 社會的 問題解決을 도와야할 것을 깨닫고 또 도움고자 노력한다.

셋째, 훌륭한 市民은 人間의 基本的 必要(要求)를 충족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생활 필수품을 수여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넷째, 훌륭한 市民은 가정, 학교, 마을, 국가 및 세계관계에 있어서 相互依存性을 인정한다. 그는 民主社會에 합당한 인간관계의 방식을 생활에 실천하고 他人과 協力할 수 있는 자기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려고 하는 誠實한 마음을 갖는다.

22) Arnold R. Meier, *A Curriculum for Citizenship* (Detroit: Wayne Univ. Press, 1952), pp. 15~16.

다섯째, 훌륭한 市民은 민주적인 생활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知識, 技能 및 能力을 갖고 활동한다 등이다.

요컨대, 디트로이트 市民教育研究에 있어서는 훌륭한 市民의 資質은 民主的 價値觀, 社會問題의 解決, 基本的인 人間의 必要充足, 人間關係의 性質, 그리고 民主社會에 필요한 知識, 技能, 能力을 갖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훌륭한 市民이란 그의 가정과 이웃에서부터 도시와 국가 그리고 세계로 까지 뻗어나가는 社會的인 責任意識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이들에게는 人間歷史와 環境에 대한 넓은 知識과 理解가 요구된다.<sup>23)</sup>

모든 국민은 민주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권리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급속하게 변천해 가는 現代社會의 政治·經濟的 問題에 대처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의무수행을 하지 않는 態度를 가진다면 그 國家와 社會는 안정될 수 없고 발전을 기할 수도 없다.

### 3. 政治態度

政治態度란 心理學的·社會學的 背景을 갖는 개념이어서 一義的으로 정의내리기 힘들다. 따라서 政治態度에 관한 研究者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政治態度를 操作 (Operation) 하여 연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LIBRARY

알몬드(Almond)나 마시알라스(Massialas), 이스튼(Easton) 등은 대개 政治對象體에 대한 心理的 定向(Psychological Orientation)을 政治文化라 하면서 政治態度를 政治文化의 한 類型으로 보고 있다.<sup>24)</sup>

캠벨(D. T. Campbell)은 "政治對象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잠재적 경향"을 政治態度라고 하였으며, 하이만(H. H. Hyman)이 정리한 政治的 態도의 종류를 보면, 전쟁에 대한 態度, 전체주의에 대한 態度, 국유제에 대한 態度, 共產主義에

23) Benjamin C. Willis et al, "Educating for American Citizenship" (Washington: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1954), pp.130~134.

24) 印正鈺, "人性特性과 政治態度와의 關係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pp.11~12.

대한 態度, 정당에 대한 態度, 國際問題에 대한 態度, 自由主義와 保守主義에 대한 態度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구자에 따라서 政黨同一視, 政治效能感, 政治信賴感, 世界主義, 政治義務感, 自民族中心主義, 政治的 疎外感, 政治的 興味, 市民的 寬容 등등 心理學的, 社會學的 背景을 갖는 무수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sup>25)</sup>

本 研究에서의 政治態度는 60年代 이래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政治效能感, 政治參與感, 政治信賴感, 市民義務感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政治效能感(Political Efficacy)은 政府의 機能을 이해하고 그것은 변화될 수 있다고 느끼는 個人의 能力이다. 즉 效能있는 사람은 자신이나 또는 다른 市民들이 政治的 決定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sup>26)</sup> 이스턴(Easton)과 데니스(Dennis)는 政治效能을 ①개인적 政治能力感 ②개인의 요구에 政府가 응한다는 信念 ③政府의 理解可能에 대한 생각 ④영향력에 미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이용가능성 ⑤政府에 대한 순종에 저항감 등으로 分析하고 있다.<sup>27)</sup>

정치참여감(Political Participation)은 政治的 討論이나 政治的 集會와 會合과 같은 政治的 活動에서 기대 또는 개입이다.<sup>28)</sup> 市民들은 政治參與를 통해 政府가 하는 일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의견을 政府에 알리게 된다고 한다.<sup>29)</sup>

政治信賴感(Political trust)은 市民이 政府와 公務員들에 대해서 발전하는 信賴感이다. 만일 市民은 政府가 그들의 生活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政治信賴에 높은 점수를 준다. 따라서 政治信賴는 정부지도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

25) 上揭論文, pp.11~14.

26) 金恒元, "政治社會化 動因으로서의 高等學校 教科書의 內容分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pp.13~17.

27) David Easton & Jack Dennis,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1. 1967, pp.25~38.

28) B. G. Massialas, *Political Youth, Traditional School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2), p.4.

29) 印正鈺, 前揭論文, p.16.

30) 金恒元, 前揭論文, p.10.

市民義務感(Citizen duty)이란 국민이 그의 政府에 대해서 느끼는 義務感으로서 보통선거에서 투표를 통해서 표현되거나 法과 規則에 복종함으로써 표현된다.<sup>31)</sup>



---

31) B. G. Massialas, op. cit., p.4.

### Ⅲ. 研究 方法

#### 1. 調査道具

調査道具는 質問紙인데, 이 質問紙에 나온 문항들은 미국의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 실린 문항들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택해서 번역하여 사용하였거나, 정치사회화에 대한 국내에서 행해진 先行研究의 문항을 선택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 質問紙들은 信賴度와 妥當度가 인정되고 있다.<sup>32)</sup> 質問紙의 領域別 內容과 問項數는 <表1>에 제시한 바와 같다.

<表1> 調査道具의 構成內容 및 問項數

내 용	문 항 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의식	민주주의 원리	3
	자유	3
	평등	4
정치 태도	정치 효능감	4
	정치 참여감	3
	정치 신뢰감	3
	시민 의무감	4
공공 의식	책임 의식	2
	질서 의식	2
계	28	

32) John P. Robinson, Jerrold G. Rusk, & Kendra B. Heal,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Ann Arbor—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8), pp.181~186.

鄭世九, "社會科 授業이 國民學校 學生들의 政治社會化에 미치는 영향," 「政治社會化」(서울: 法文社, 1987), pp.236~239.

李鍾烈, "高等學生의 政治態度 發達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pp.5~11.



이러한 市民意識에 관련된 문항들의 測定은 각 문항마다 5단계의 반응답지가 주어지는 Likert式이다. 다시 말해서 "확실히 그렇다."에 5점, "그런것 같다."에 4점, "잘 모르겠다."에 3점, "아닌것 같다."에 2점, "확실히 아니다."에 1점으로 환산하였다.

## 2. 調査對象 및 實施

本 研究를 위한 연구대상은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母集團을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地域別로 男·女 각각 1個校씩, 濟州市 2個校, 西歸浦市 2個校, 그 外 地域에서 2個校를 선정하였으며, 각 學校別로는 한 學年에 1學級씩 3個 學級을 선정하여 총계 18學級 약 1,0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表2〉 地域別 質問紙 實施 對象者數와 回收現況

지역	구분 성별	실시대상자수		회 수		회수율 (%)
		남	여	남	여	
제 주 시		180	180	151	166	88.1
서귀포시		180	180	165	163	91.1
기 타		180	180	152	150	83.9
계		540	540	468	479	87.7

〈表3〉 背景變因別 標集人員數

배 경 변 인	변 인 구 분	계
성 별	남(468), 여(479)	947
학 년 별	1학년(319), 2학년(313), 3학년(315)	947
부모의경제생활정도별	상(11), 중(837), 하(99)	947
부 모 의 거 주 지 별	시지역(522), 농·어촌지역(425)	947
부 모 의 직 업 별	농업(529), 상·공업(171), 공무원·교사(108), 기타(139)	947

標集은 1988年 3月 21日부터 3月 27日 사이에 실시 회수하였으며 質問紙 實施 方法은 선정된 高等學校에 직접 방문, 또는 부탁하여 각 學校의 社會科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實施한 후 회수하였다.

質問紙의 實施結果는 <表2>에 提示된 바와 같으며 回收된 數는 1,035명이었다. 標集된 1,035명 중 質問紙의 全問項에 반응을 하지 않은 것과 한 問項에 둘 이상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88명) 실제분석의 대상으로 취급된 標集數는 947명이었다. 따라서 최종적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標集의 背景變因別數는 <表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러나 특히, 부모의 경제생활 정도별에 있어서는 上인 학생이 11名 뿐이어서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로 중류와 하류를 가지고 分析하기로 한다.

### 3. 資料處理

蒐集된 資料들은 分析을 위해서 전산처리 되었으며, 이 研究에서 사용된 統計 値는 平均(M), 百分比(%), S·D, 百分比差의 意義度(F檢證) 檢證 등이다.

資料의 分析 및 제시방법은 전체 및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에 平均(M)을 가지고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5단계의 반응분포를 대체로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것 같다."를 합쳐 "그렇다."로, "아닌것 같다."와 "확실히 아니다."를 합쳐 "아니다."로 合算하여 分析하였으며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差의 意義度檢證은 F檢證을 적용시켰다.

## IV. 結果 및 論議

### 1. 領域別 分析

#### 가.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

##### (1) 民主主義 原理

民主主義 原理에 대한 濟州道 高等學生의 意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해 民主政治 體制의 選好度, 民主主義 實現意志, 民主主義 權能感 등에 대한 意思表示를 묻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는 <表4>에서 볼 수 있다.

民主政治 體制에 관해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民主主義는 가장 좋은 정부형태이다."라는 문항이 제시되었는데 이 문항에 대하여 84.8%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7.7%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 民主主義 政治體制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反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民主主義 實現意志를 알아 보기 위해 "경제발전에 다소 지장이 있어도 민주주의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이 제시되었는데, 이 문항에 대하여는 64.5%가 '그렇다.', 19.2%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나타내어 民主主義 實現意志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民主主義 權能感에 관한 문항,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훌륭하게 키워낼 자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는 70.3%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15.2%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 民主主義 實現에 관한 우리 국민의 능력감은 높은 긍정적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民主主義 原理에 관련하여 설정된 3개 문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보면, 民主主義 政治體制에 상당히 選好하고 있으며 民主主義 實現意識에도 상당히

〈表4〉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구 분 내 용	문항	N	M	SD	반응구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민주주의 원 리	6	947	4.13	.893	352 (37.2)	451 (47.6)	71 (7.5)	62 (6.5)	11 (1.2)
	7	947	3.78	1.21	352 (37.2)	259 (27.3)	154 (16.3)	142 (15.0)	40 (4.2)
	8	947	3.94	1.14	394 (41.6)	272 (28.7)	137 (14.5)	118 (12.5)	26 (2.7)
자 유	9	947	4.04	1.30	522 (55.1)	186 (19.6)	55 (5.8)	127 (13.4)	57 (6.0)
	10	947	4.44	.925	607 (64.1)	232 (24.5)	48 (5.1)	40 (4.2)	20 (2.1)
	11	947	2.31	1.31	93 (9.8)	95 (10.0)	156 (16.5)	273 (28.8)	330 (34.8)
평 등	12	947	1.90	1.27	64 (6.8)	90 (9.5)	63 (6.7)	199 (21.0)	531 (56.1)
	13	947	4.55	.920	700 (73.9)	146 (15.4)	40 (4.2)	41 (4.3)	20 (2.1)
	14	947	3.78	1.21	357 (37.7)	259 (27.3)	164 (17.3)	118 (12.5)	49 (5.2)
	15	947	4.55	.87	679 (71.7)	176 (18.6)	43 (4.5)	33 (3.5)	16 (1.7)

긍정적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民主主義權能感에서도 긍정적 反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自由

自由에 대한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意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개 문항이 설정되었다. 〈表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自由에 대한 反應결과를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74.7%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19.4%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

어 자유에 대해 높은 意識性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民主主義 국가에서도 법률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88.6%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6.3%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여, 자유에 대한 意識은 높으나 法律에 의한 자유의 制限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19.8%가 '그렇다.', 16.5%가 '잘 모르겠다.', 63.6%가 '아니다.'로 반응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유에 관하여 설정된 3개 문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보면, 자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율이 7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法律에 의한 자유의 制限에도 88.6%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居住移轉의 자유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3) 平等

平等에 대한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意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4개 문항이 설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分析해 보면 아래와 같다.

<表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수에 의한 지배에 관한 意識을 묻는, "소수의 강력하고 유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16.3%가 '그렇다.'로, 77.1%가 '아니다.'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89.3%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6.4%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나는 정부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서는 65.0%가 '그렇다.'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잘 모르겠다.'가 17.3%, '아니다.'가 17.7%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90.3%가 '그렇다.'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平等에 관련하여 설정된 4개 문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보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통치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政策決定에 관한 國民들의 影響力 行事に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데에도 높은 반응(90.3%)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 나. 政治態度

##### (1) 政治效能感

政治效能感에 대한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意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政府가 하는 일에 대한 認識, 政府에 대한 影響力 行事方法에 대한 認識, 個人의 政治效能感(1, 2)에 대한 意識與否를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5>에서 볼 수 있다.

濟州道 高等學生들이 政治나 政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認識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때때로 정치나 정부는 대단히 복잡해서 나같은 학생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60.3%가 '그렇다.', 26.4%가 '아니다.'로 나타나고 있다.

政府에 대한 影響力 行事方法에 대하여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는 투표하는 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문항이 제시되었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은, '그렇다.'가 42.7%, '아니다.'가 48.4%,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8.81%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정적인 반응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個人의 政治效能感を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이 무엇이든 정부가 하는 일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보면, 15.5%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72.9%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個人이 政治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시 個人의 政治效能感에 관한 意識을 알아보기 위해 제시된,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문항에서는 전체응답자의 16.0%만이 '그렇다.'고 반응을 하였고, 19.4%가 '잘 모

〈表5〉 政治態度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구 분 내 용	문항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정 치 효 능 감	16	947	3.48	1.26	213 (22.5)	358 (37.8)	126 (13.3)	168 (17.7)	82 (8.7)
	17	947	2.95	1.52	220 (23.2)	185 (19.5)	83 (8.8)	238 (25.1)	221 (23.3)
	18	947	2.05	1.19	49 (5.2)	94 (9.9)	113 (11.9)	289 (30.5)	402 (42.4)
	19	947	2.19	1.18	41 (4.3)	111 (11.7)	184 (19.4)	263 (27.8)	348 (36.7)
정 치 참 여 감	20	947	3.36	1.28	196 (20.7)	332 (35.1)	119 (12.6)	216 (22.8)	84 (8.9)
	21	947	2.38	1.23	50 (5.3)	186 (19.6)	99 (10.5)	347 (36.6)	265 (28.0)
	22	947	3.01	1.29	164 (17.3)	254 (26.8)	140 (14.8)	290 (30.6)	99 (10.5)
정 치 신 퇴 감	23	947	2.43	1.24	105 (11.1)	75 (7.9)	158 (16.7)	394 (41.6)	215 (22.7)
	24	947	2.75	1.22	95 (10.0)	190 (20.1)	186 (19.6)	335 (35.4)	141 (14.9)
	25	947	2.80	1.23	82 (8.7)	231 (24.4)	201 (21.2)	276 (29.1)	157 (16.6)
시 민 의 무 감	26	947	1.34	.713	10 (1.1)	14 (1.5)	33 (3.5)	169 (17.8)	721 (76.1)
	27	947	1.26	.73	17 (1.8)	14 (1.5)	16 (1.7)	95 (10.0)	805 (85.0)
	28	947	1.54	.910	16 (1.7)	35 (3.7)	73 (7.7)	199 (21.0)	624 (65.9)
	29	947	1.23	.67	14 (1.5)	14 (1.5)	14 (1.5)	88 (9.3)	817 (86.3)

르겠다.’는 반응을 하여 무관심을 나타내었으며 64.5%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하여 個人的 政治效能感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政治效能感에 관련하여 설정된 4개의 문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보면, 전체응답자의 60.3%가 政治나 政府가 하는 일에 대한 認識力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個人이 政治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個人的 政治效能感은 비교적 높은 性向이 있음을 볼 수 있다.

## (2) 政治參與感

政治參與感에 대한 濟州道 高等學生의 意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한 政治問題에의 관심표명, 政治問題에 대한 討論에의 參加與否(1, 2) 등을 묻는 3개의 문항이 설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政治問題에의 관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에서 세계의 정치형편이나 나라안의 정치형편에 대해 열심히 듣고 본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보면, 55.8%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하여 긍정적인 意識性向을 보이며 31.7%가 ‘아니다.’로 반응하고 있다.

政治問題에 대한 討論에 어느 정도 參加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어른들과 자주 정치문제를 토론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전체응답자의 24.9%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64.6%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政治問題에 대한 討論에 있어서 소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친구들과 정치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서도 44.1%가 ‘그렇다.’ 14.8%가 ‘잘 모르겠다.’, 41.1%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친구들과의 政治討論도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政治參與感에 관련하여 설정된 3개의 문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보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政治問題에의 관심에서는 55.8%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며 政治問題에 대한 討論에의 參加與否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대체로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政治參與感은 낮다고 할 수 있다.



### (3) 政治信賴感

政治信賴感에 대한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意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政府指導者의 청렴결백에 대한 信賴感, 政府의 국민에 대한 관심, 政府施政의 正當性에 대한 信賴感을 묻는 3개의 문항을 설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5>에서 볼 수 있다.

濟州道 高等學生들이 政府指導者에 대하여 얼마나 信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청렴결백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보면, 19.0%가 '그렇다.', 16.7%가 '잘 모르겠다.', 64.3%가 '아니다'로 나타나고 있어 政府指導者의 청렴결백에 대해 不信하는 態度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政府의 國民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信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 들인다고 믿고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30.1%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19.6%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50.3%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30.1%에 불과하고 '잘 모르겠다.'와 부정적인 응답을 합하면 69.9%가 政府의 政策決定에 대하여 不信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政府施政의 正當性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信賴感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33.1%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21.2%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45.7%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어 政府가 國民의 利益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45.7%나 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2%나 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政治信賴感에 관련하여 설정된 3개의 문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보면, 政府指導者의 청렴결백에 대해 不信하는 態度(64.3%)를 보이고 있으며 政府의 國民에 대한 관심에도 50.3%가 不信하는 態度로 나타나고 있었고, 政府가 國民의 利益을 위해서 일한다는 데 대해서 33.1%만이 信賴感을 나타내었고 45.7%가 不信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 (4) 市民義務感

市民義務感에 대한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意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投票參與義務感(1, 2), 政治人이나 公務員에 대한 意思表示, 國民의 정치에 대한 관심등에 관한 意識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表5>에서 볼 수 있다.

投票에의 參與義務에 관해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질 것 같이 생각될 때는 투표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보면 2.6%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93.9%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어 자기가 좋아하는 政治人이나 政黨의 선거에서의 탈락에 관계없이 投票를 해야 한다는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한 분쯤은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문항에서도 3.3%가 '그렇다.', 95.0%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어 반드시 投票를 해야 한다는 認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政治人이나 公務員에 대한 意思表示에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정치를 말아하는 정치인이나 나라살림을 말아하는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는 5.4%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86.9%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어 政治를 말아하는 政治人이나 나라살림을 말아하는 公務員들에게 자기의 意見을 表示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民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라의 정치형편을 잘 모르고 있어도 좋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의 반응결과를 보면 3.0%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1.5%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95.6%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여 국민들도 나라의 정치형편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市民義務感에 관련하여 설정된 4개의 문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보면, 投票參與義務, 政治人이나 公務員에 대한 意思表示, 政治에 대한 관심

등 모두에 아주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높은 市民義務感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公共意識

##### (1) 秩序意識

秩序意識에 대한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意識性向을 측정하기 위해서 2개의 문항이 설정되었다. 이들의 반응결과는 <表6>에서 볼 수 있다.

이 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질서를 잘 지킨다."라는 문항에서는 5.0%만이 '그렇다.'로 반응을, 88.9%가 '아니다.'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高等學生들은 어른들의 秩序意識에 상당히 부정적인 意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라는 문항에서는 57.5%가 '그렇다.'로 반응을, 27.0%가 '아니다.'로, 15.4%가 '잘 모르겠다.'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秩序意識에 관련하여 설정된 2개 문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보면, 濟州道 高等學生들은 秩序意識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意識性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2) 責任意識

責任意識에 대한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意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2개의 문항이 설정되었다. 이들의 반응결과는 <表6>에서 볼 수 있다.

이 表에 따르면 "자기가 맡은 일은 꼭 실천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3.6%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33.4%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의식이 강하다."라는 문항에서는 25.1%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51.6%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責任意識에 관련하여 설정된 2개 문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表6〉 公共意識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구 분 내 용	문항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질서의식	30	947	1.89	.77	11 ( 1.2)	38 ( 4.0)	56 ( 5.9)	571 ( 60.3)	271 ( 28.6)
	31	947	3.35	1.29	167 ( 17.6)	378 ( 39.9)	146 ( 15.4)	130 ( 13.7)	126 ( 13.3)
책임의식	32	947	3.21	1.13	135 ( 5.8)	277 ( 19.3)	219 ( 23.2)	279 ( 40.2)	37 ( 11.4)
	33	947	2.68	1.09	55 ( 5.8)	183 ( 19.3)	220 ( 23.2)	381 ( 40.2)	108 ( 11.4)

보면,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에 43.6%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責任意識에 관해서는 25.1%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責任意識이 높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 2. 背景變因에 따른 市民意識의 差異

### 가.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

#### (1) 性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性別에 따른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認識性向은 〈表7〉에 제시하였다.

이 表에 따르면, 民主主義 原理에 대한 意識은 남학생 平均이 11.95, 여학생 平均이 11.76으로 나타나 男女의 性別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自由에 대해서는 여학생(M=8.14)이 남학생(M=7.68)보다 意識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001$ 수준에서 意義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平等에 대해서는 남학생(M=17.4)이 여학생(M=16.86)보다 비교적 더 높은 긍정적인 性向을 보이고 있다.

〈表7〉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

구분 내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민주주의 원리	남	468	49.42	11.95	2.30	1.748	.186
	여	479	50.59	11.76	2.09		
자유	남	468	49.42	7.68	2.21	10.932	.001***
	여	479	50.59	8.14	2.01		
평균	남	468	49.42	17.14	2.49	2.916	.088
	여	479	50.59	16.86	2.42		

\*\*\*p<.001

(2) 學年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學年別에 따른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8〉에 제시하였다.

〈表8〉 學년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

구분 내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민주주의 원리	1학년	319	33.69	12.04	2.09	3.955	.019*
	2학년	313	33.05	11.95	2.14		
	3학년	315	33.26	11.57	2.34		
자유	1학년	319	33.69	7.60	1.99	5.444	.004**
	2학년	313	33.05	8.13	2.12		
	3학년	315	33.26	8.02	2.23		
평균	1학년	319	33.69	16.88	2.43	.534	.587
	2학년	313	33.05	17.04	2.41		
	3학년	315	33.26	17.07	2.54		

\*p<.05

\*\*p<.01

이 表에 따르면, 民主主義 原理에 대한 意識은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고 있다. 1學年은  $M=12.04$ 로 가장 높은 意識性向을 나타내고 있으나 2學年은  $M=11.95$ , 3學年은  $M=11.57$ 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p<.05$ 수준에서 學年間的 有意한 差를 볼 수 있다. 自由에 대해서는, 1學年이 가장 낮은 점수로  $M=7.60$ 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2學年이  $M=8.13$ 으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3學年은  $M=8.02$ 로 나타나  $p<.01$ 수준에서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다. 平等에 대한 意識은 1學年은  $M=16.88$ , 2學年은  $M=17.04$ , 3學年이  $M=17.07$ 로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 반응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學年別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에 관한 반응결과를 요약해 보면, 民主主義 原理에 대한 意識은 1學年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自由에 대한 意識은 2學年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平等에 대한 意識은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큰 차이는 없으나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3) 父母의 經濟生活程度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父母의 經濟生活程度에 따른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은 <表9>에 제시하였다.

<表9>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

구분 내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민주주의 원리	상	11	1.16	11.91	2.26	.086	.918
	중	837	88.38	11.86	2.18		
	하	99	10.45	11.77	2.36		
자유	상	11	1.16	7.36	2.29	.781	.458
	중	837	88.38	7.94	2.09		
	하	99	10.45	7.74	2.41		
평등	상	11	1.16	17.00	2.65	.155	.856
	중	837	88.38	17.01	2.42		
	하	99	10.45	16.87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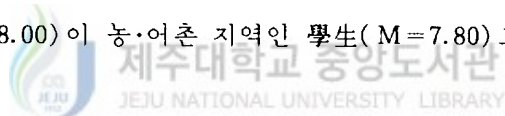
이 表에 따르면, 民主主義 原理에 대한 意識은 父母의 經濟生活 정도가 中인 學生이  $M=11.96$ , 그리고 下인 學生이  $M=11.77$ 로 나타나고 있으며, 自由에 대한 意識은 中인 學生이  $M=7.94$ 로, 下인 學生이  $M=7.74$ 로 나타나고 있어 父母의 經濟生活程度에 따라 有意한 차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平等에 대한 意識은 父母의 經濟生活 정도가 中인 學生이  $M=17.01$ 로 下인 學生( $M=16.87$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父母의 經濟生活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에 관한 反應결과를 요약해 보면, 民主主義와 自由에 관한 意識은 父母의 經濟生活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平等에 대한 意識은 中인 學生이 下인 學生보다 비교적 높은 意識性向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 (4) 父母의 居住地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父母의 居住地別에 따른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10>에 제시하였다.

이 表에 따르면, 民主主義 原理에 대한 意識은 父母의 居住地가 시와 농·어촌 지역간에 差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自由에 관한 意識은 父母의 居住地가 시지역인 學生( $M=8.00$ )이 농·어촌 지역인 學生( $M=7.80$ )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表10> 父母의 居住地別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

구 분 내 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민주주의 원 리	시 지 역	522	55.12	11.85	2.23	.000	.991
	농·어촌지역	425	44.88	11.85	2.15		
자 유	시 지 역	522	55.12	8.00	2.03	2.111	.147
	농·어촌지역	425	44.88	7.80	2.23		
평 등	시 지 역	522	55.12	17.07	2.43	.944	.331
	농·어촌지역	425	44.88	16.91	2.49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平等에 관한 意識은 父母가 시지역에 居住하는 學生인 경우(M=17.07)가 농어촌 지역에 居住하는 學生인 경우(M=16.91)보다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父母의 居住地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에 관한 反應결과를 요약해 보면, 民主主義 原理에 대한 意識은 父母의 居住地에 따라 差異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自由와 平等에 대한 意識은 父母의 居住地가 농·어촌인 學生보다는 시지역인 學生이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反應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5) 父母의 職業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父母의 職業別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11>에 제시하였다.

<表11> 父母의 職業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

구분 내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민주주의 원리	농업	529	55.86	11.77	2.13	1.197	.310
	상·공업	171	18.06	11.88	2.22		
	공무원·교사	108	11.40	12.20	2.17		
	기타	139	14.68	11.88	2.42		
자유	농업	529	55.86	7.74	2.21	5.004	.002**
	상·공업	171	18.06	8.26	1.95		
	공무원·교사	108	11.40	8.42	1.76		
	기타	139	14.68	7.77	2.15		
평등	농업	529	55.86	16.89	2.45	.967	.408
	상·공업	171	18.06	17.09	2.34		
	공무원·교사	108	11.40	17.30	2.71		
	기타	139	14.68	17.06	2.42		

\*\*p<.01



이 表에 따르면, 변인구성비로 볼 때 父母의 職業은 농업(55.86), 상·공업(18.06), 기타(14.08), 공무원·교사(11.40)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 1次 產業에 종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民主主義 原理에 관해서는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學生이  $M=12.2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 상·공업, 기타인 경우는 거의 비슷한 의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自由에 관해서는 공무원·교사인 學生( $M=8.42$ )이 가장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상·공업인 학생( $M=8.26$ )이 그 다음 수준으로, 기타( $M=7.77$ ), 농업( $M=7.74$ ) 順으로 意識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p<.01$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平等에 관해서는 공무원·교사인 學生이  $M=17.30$ 으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공업, 기타, 농업등도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父母의 職業別에 따라 나타나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의 差異에 관한 반응결과를 요약해 보면,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學生이 民主主義 原理, 自由 그리고 平等에 대한 意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공업인 學生이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반응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 나. 政治態度

##### (1) 性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性別에 따른 政治態度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12>에 제시하였다.

이 表에 따르면, 政治效能感, 政治信賴感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그리고 政治參與感,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비교적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는 남·여 모두  $M=18$ 이상(남=18.37, 여=18.92)의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政治參與感에서는  $p<.05$  수준에서 有意한 差를 보여주고 있다.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에 관한 반응결과를 요약해 보면, 政治效能感, 政治信賴感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政治

〈表12〉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

구분 내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정치 효능감	남	468	49.42	13.72	3.20	12.735	.000
	여	479	50.58	12.97	3.29		
정치 참여감	남	468	49.42	8.62	2.78	5.542	.019*
	여	479	50.58	9.05	2.82		
정치 신뢰감	남	468	49.42	8.11	2.87	2.050	.153
	여	479	50.58	7.85	2.75		
시민 의무감	남	468	49.42	18.37	2.22	17.008	.000
	여	479	50.58	18.92	1.92		

\*p<.05

參與感, 市民義務感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政治的 定向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政治에 더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反政府的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本 研究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學年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學年別에 따른 政治態度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13〉에 제시하였다.

이 表에 따르면, 政治效能感에 있어서 모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1學年(M=13.60), 2學年(M=13.45), 3學年(M=12.97)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學년이 높아짐에 따라 政治效能感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p<.05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政治參與感은 學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政治信賴感은 1學年(M=8.38), 2學年(M=7.75) 3學年(M=7.59)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學년이 높아갈수록 政治信賴感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p<.01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市民義務感은 1

〈表13〉 學年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的 差異

구 분 내 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정치효능감	1 학년	319	33.69	13.60	3.09	3.136	.044*
	2 학년	313	33.05	13.45	3.27		
	3 학년	315	33.26	12.97	3.41		
정치참여감	1 학년	319	33.69	8.86	2.80	.107	.898
	2 학년	313	33.05	8.87	2.81		
	3 학년	315	33.26	8.77	2.82		
정치신뢰감	1 학년	319	33.69	8.38	2.86	6.336	.002**
	2 학년	313	33.05	7.95	2.64		
	3 학년	315	33.26	7.59	2.87		
시민의무감	1 학년	319	33.69	18.76	1.99	1.417	.243
	2 학년	313	33.05	18.49	2.23		
	3 학년	315	33.26	18.69	2.03		

\*p<.05

\*\*p<.01

學年( M = 18.76 ), 2學年( M = 18.49 ), 3學年( M = 18.69 ) 모두 아주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선거시의 투표, 법과 규칙의 준수 등에 대한 義務感이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學年別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的 差異에 관한 반응결과를 요약해 보면, 政治效能感과 政治信賴感의 경우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差異를 보이면서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政治參與感,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는 學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3)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父母의 經濟生活程度에 따른 政治態度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14〉에 제시하였다.

〈表14〉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

구 분 내 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정치효능감	상	11	1.16	12.55	4.63	.379	.685
	중	837	88.38	13.36	3.25		
	하	99	10.45	13.25	3.27		
정치참여감	상	11	1.16	10.00	2.49	.988	.373
	중	837	88.38	8.83	2.80		
	하	99	10.45	8.76	2.82		
정치신뢰감	상	11	1.16	7.64	2.69	.081	.923
	중	837	88.38	7.98	2.77		
	하	99	10.45	7.98	3.16		
시민의무감	상	11	1.16	19.27	1.01	1.687	.186
	중	837	88.38	18.68	2.03		
	하	99	10.45	18.33	2.61		

이 表에 따르면, 政治效能感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가 中인 學生이  $M=13.36$ 으로, 下인 學生이  $M=13.25$ 로 나타나고 있어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政治參與感은 中인 學生이  $M=8.83$ 으로, 下인 學生이  $M=8.76$ 으로 반응을 나타내었고 政治信賴感에서는 둘다  $M=7.98$ 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市民義務感에서도 中인 學生이  $M=18.68$ 로, 下인 學生이  $M=18.33$ 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에 따른 政治態度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4) 父母의 居住地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父母의 居住地別에 따른 政治態度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15〉에 제시하였다.

이 表에 따르면, 政治效能感和 政治信賴感은 父母의 居住地域이 농·어촌인 學生( $M=13.48$ ,  $M=8.08$ )이 시지역인 學生( $M=13.22$ ,  $M=7.89$ )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政治參與感은  $p<.05$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여 주

〈表15〉 父母의 居住地別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

구분 내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정 치 효능감	시 지 역	522	55.12	13.22	3.31	1.489	.223
	농·어촌지역	425	44.88	13.48	3.21		
정 치 참여감	시 지 역	522	55.12	9.02	2.87	5.395	.020*
	농·어촌지역	425	44.88	8.60	2.72		
정 치 신뢰감	시 지 역	522	55.12	7.89	2.85	1.084	.298
	농어촌지역	425	44.88	8.08	2.76		
시 민 의무감	시 지 역	522	55.12	18.65	2.26	.003	.959
	농어촌지역	425	44.88	18.64	1.87		

\*p<.05

면서 父母의 居住地域이 시지역인 學生(M=9.02)이 농·어촌인 學生(M=7.89)보다 높은 政治參與意識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市民義務感은 父母의 居住地域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부모의 居住地別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에 관한 반응결과를 요약해 보면, 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政府指導者나 政府에 대한 믿음은 父母의 居住地가 농·어촌인 學生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政治參與感은 父母의 居住地가 시지역인 學生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5) 父母의 職業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父母의 職業에 따른 政治態度의 意識性向은 〈表16〉에 제시하였다.

이 表에 따르면, 政治效能感에 있어서는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學生(M=13.66)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個人의 政治行動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父母의 職業이 농업인

〈表16〉 父母의 職業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

구분 내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정치 효능감	농업	529	55.86	13.48	3.20	2.064	.103
	상·공업	171	18.06	12.85	3.40		
	공무원·교사	108	11.40	13.66	3.56		
	기타	139	14.68	13.18	3.09		
정치 참여감	농업	529	55.86	8.53	2.71	5.422	.001***
	상·공업	171	18.06	9.06	2.96		
	공무원·교사	108	11.40	9.53	2.65		
	기타	139	14.68	9.18	2.96		
정치 신뢰감	농업	529	55.86	7.93	2.74	.425	.735
	상·공업	171	18.06	7.91	2.96		
	공무원·교사	108	11.40	8.25	2.90		
	기타	139	14.68	8.01	2.83		
시민 의무감	농업	529	55.86	18.62	2.05	.634	.593
	상·공업	171	18.06	18.59	2.27		
	공무원·교사	108	11.40	18.59	2.44		
	기타	139	14.68	18.87	1.69		



\*\*\*p<.001

學生(M=13.48)이 그 다음으로, 기타(M=13.18), 상·공업(M=12.85) 등 順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職業別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政治參與感에 있어서는 공무원·교사가 M=9.53으로 가장 높으며, 기타가 M=9.18, 상·공업이 M=9.06으로 반응을 보이며 농업인 學生이 M=8.53으로 가장 낮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政治에 대한 討論이나 논쟁에 참여하는 느낌은 父母의 職業에 따라 有意한 差(p<.001)를 보이고 있다. 政治信賴感에 있어서는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學生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職業別로 有意한 差異는 보이지 않는다. 市民義務感에 있어서도 父母의 職業別 政治態度의 差異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M=18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職業別에 따라 나타나는 政治態度의 差異에 관한 반응결과를 요약해 보면, 政治效能感, 政治參與感, 政治信賴感에 있어서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學生이 가장 높게 나타나 政治態度에 관해 높은 意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公共意識

##### (1) 性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性別에 따른 公共意識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17>에 제시하였다.

<表17>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

구 분 내 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질서의식	남	468	49.42	4.50	1.64	.597	.440
	여	479	50.58	4.58	1.64		
책임의식	남	467	49.42	6.00	1.80	4.403	.036*
	여	479	50.58	5.77	1.69		

\*p<.05

이 表에 따르면 秩序意識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여학생의 경우(M=4.58)가 남학생의 경우(M=4.50)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 責任意識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 특히 남학생인 경우(M=6.00)가 여학생의 경우(M=5.77)보다 높은 意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p<.05 수준에서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다.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에 관한 반응결과를 요약해 보면, 秩序意識에서는 남·여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責任意識에서는 남학생인 경우가 여학생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 높은 意識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學年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學年別에 따른 公共意識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18>에 제시하였다.

<表18> 學年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

구 분 내 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질서의식	1 학 년	319	33.69	4.68	1.75	2.422
2 학 년		313	33.05	4.54	1.58		
3 학 년		315	33.26	4.39	1.58		
책임의식	1 학 년	319	33.69	6.14	1.78	6.980	.001***
	2 학 년	313	33.05	5.89	1.68		
	3 학 년	315	33.26	5.62	1.75		

\*\*\*p<.001

이 表에 따르면, 秩序意識이나 責任意識은 1學年에서 3學年으로 갈수록 점점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責任意識은  $p<.001$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秩序意識인 경우 1學年이  $M=4.68$ 이었던 것이 2學年에서는  $M=4.54$ 로, 3學年에서는  $M=4.39$ 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으나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意識이 약해지고 있다. 責任意識은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나타나는데 ( $p<.001$ ), 특히 1學年인 경우는  $M=6.14$ 로 아주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學年( $M=5.89$ ), 3學年( $M=5.62$ )으로 갈수록 덜 긍정적인 반응결과를 나타낸다.

學年別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에 관한 반응결과를 요약해 보면, 대체로, 秩序意識이나 責任意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으나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意識도 점차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3)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別에 따른 公共意識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19>에 제시하였다.

<表19>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

구분 내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질서의식	상	11	1.16	5.09	1.64	1.290	.276
	중	837	88.38	4.55	1.62		
	하	99	10.45	4.35	1.84		
책임의식	상	11	1.16	6.45	2.29	.736	.479
	중	837	88.38	5.89	1.73		
	하	99	10.45	5.79	1.82		

이 表에 따르면, 秩序意識은 父母의 經濟生活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낮을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經濟生活 程度가 中인 學生(M=4.55)과 下인 學生(M=4.35)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責任意識에서도 中인 學生이 M=5.89, 下인 學生이 M=5.79로 각각 반응을 보여 秩序意識에서와 마찬가지로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意識性向을 나타내고 있다.

(4) 父母의 居住地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父母의 居住地別에 따른 公共意識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20>에 제시하였다.

이 表에 따르면, 父母의 居住地別로 高等學生들의 秩序意識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父母의 居住地域이 농·어촌인 學生들(M=4.67)이 시지역에 居住하는 學生들(M=4.44)보다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05$  수준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責任意識은 시지역이 M=5.81, 농·어촌지역이 M=5.98로 나타나 父母의 居住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表20〉 父母의 居住地別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

구 분 내 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질서의식	시 지역	522	55.12	4.44	1.63	4.577
농·어촌지역		425	44.88	4.67	1.65		
책임의식	시 지역	522	55.12	5.81	1.71	2.166	.141
	농·어촌지역	425	44.88	5.98	1.80		

\*p<.05

(5) 父母의 職業別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父母의 職業別에 따른 公共意識에 대한 意識性向은 〈表21〉에 제시하였다.

〈表21〉 父母의 職業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

구 분 내 용	변인구분	N	변인구성비 (%)	M	SD	F	P
	질서의식	농업	529	55.86	4.57	1.66	1.662
상·공업		171	18.06	4.30	1.50		
공무원·교사		108	11.40	4.65	1.77		
기타		139	14.68	4.65	1.61		
책임의식	농업	529	55.86	5.92	1.74	.421	.738
	상·공업	171	18.06	5.78	1.75		
	공무원·교사	108	11.40	5.79	1.85		
	기타	139	14.68	5.93	1.69		

이 表에 따르면, 秩序意識은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學生이 M=4.65, 기타인 學生이 M=4.65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M=4.57), 상·공업(M=4.30) 順으로 점차 낮은 意識性向을 나타낸다. 責任意識에 관해서는 父母의 職業이 기타인 學生과, 농업인 學生이 각각 M=5.93, M=5.92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공무원·교사인 경우는 낮은 반응을 나타낸다.

부모의 職業別에 따라 나타나는 公共意識의 差異에 관한 반응결과를 요약해 보면, 秩序意識에 관해서는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學生과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學生들의 意識性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責任意識에 관해서는 기타인 경우와 농업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表에 따르면 父母의 職業에 따라서 秩序意識이나 責任意識등의 公共意識은 별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의 目的은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市民意識을 調查分析함으로써 民主主義 發展과 社會科 教育의 發展을 위한 기초자료를 提示하고 社會科 教育의 方向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市民意識의 概念定義와 既存研究를 分析하여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意識構造를 內容次元에서 우선 크게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 政治態度, 公共意識 領域으로 分類하고, 이들 領域을 다시 民主主義 原則에 관한 意識에서는 民主主義 原理, 自由, 平等으로, 政治態度에서는 政治效能感, 政治參與感, 政治信賴感, 市民義務感으로, 公共意識에서는 秩序意識, 責任意識 次元으로 分類하였다.

測定道具는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 領域이 10個 問項, 政治態度 領域이 14 個 問項, 公共意識 領域이 4個 問項으로 總 28個 問項을 質問紙化 하였다.

研究對象은 地域別로 男女 各 1個校씩, 濟州市 2個校, 西歸浦市 2個校 그리고 그 外 地域에 2個校를 選定하여 各 學校別로 한 學年에 1學級씩 3個 學級으로 하여 1,080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標集方法은 社會科 教科目を 담당하고 있는 教師에게 부탁한 후 實施하여 回收하는 方法을 택하였다.

質問紙를 實施하여 回收된 數는 1,035名이었으며, 이 중에서 全 問項에 應答을 하지 않은 88名을 제외하고, 실제로 分析의 對象으로 취급된 標集數는 947名이었다. 蒐集된 資料는 전산처리를 하였으며 이 研究에서 使用된 통계치는 平均(M), 百分比(%), S·D, F檢證을 통하여 分析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난 結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領域別 分析에서 보면,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에서는, 民主主義 原理에 대한 意識이 73.2%가 긍정적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14.0%가 부정적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상당히 높은 意識 性向을 보인다. 自由에 대한 意識은 61.0%가 긍정적인 反應을, 29.9%가 부정적

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平等에 대한 意識은 65.2%가 긍정적인 反應을, 26.6%가 부정적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볼 때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性向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政治態度에 대한 意識性向을 보면, 政治效能感에 있어서는 33.5%가 부정적인 反應을, 53.1%가 긍정적인 反應을 나타내어 政治效能感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政治參與感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反應이 41.6%로, '아니다'라는 反應이 45.8%로 나타내어 政治參與意識이 적극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政治信賴感에서는 긍정적인 反應이 17.4%, 부정적인 反應이 53.4%로 나타나고 있어 낮은 意識性向을 보이고 있으며 市民義務感에서는 92.9%가 긍정적으로 反應을 보여 높은 意識性向을 보인다. 따라서 政治態度에 대한 意識性向을 전반적으로 볼 때, 政治效能感和 市民義務感은 비교적 높으나, 政治參與感和 政治信賴感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公共意識에 있어서는, 秩序意識이 3.14%가 긍정적으로, 73.6%가 부정적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責任意識이 34.4%가 긍정적으로, 42.5%가 부정적으로 反應을 보여, 전반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意識性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背景變因別로 볼 때 全體反應傾向은 대체로 民主主義 原則에 대한 意識次元에서는 性別에 따라 큰 差異는 없으나 民主主義 原理, 平等에서는 男學生이, 自由에서는 女學生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學年別인 경우에는 民主主義 原理는 學年이 낮을수록, 平等은 學年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가 中이며 父母의 居住地域이 市지역, 그리고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學生이 가장 높은 意識性向을 나타내고 있다.

政治態度 次元에서는 性別로 볼 때 男學生은 政治效能感, 政治信賴感에, 女學生은 政治參與感, 市民義務感에 더 높은 意識性向을 나타내었고, 學年別로 볼 때 政治效能感和 政治信賴感은 學年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有意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父母의 居住地別로 볼 때는 시지역인 學生이 政治參與感, 市民義務感에, 농·어촌 지역인 學生이 政治效能感, 政治信賴感에 각각 높은 性向을 보여

주고 있으며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學生이 가장 긍정적인 性向을 보이고 있다.

公共意識 次元에서 볼 때 責任意識은 男學生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學年別로 볼 때는 學年이 점차 높아질수록 意識性向이 낮아지며, 父母의 經濟生活 수준이 높은 學生, 父母의 居住地가 농·어촌인 學生,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學生이 비교적 더 높은 意識性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더 市民意識性向이 높게 나타나며 대체로 學年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父母의 經濟生活 程度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反應 結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父母의 職業이 공무원·교사인 경우가 가장 높은 市民意識性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參 考 文 獻

- 金蘭洙. 「民主市民教育의 方法」. 서울: 현대교육신서출판사, 1969.
- 金在泳. 「政治社會化論」. 서울: 大旺社, 1983.
- 金忠男. 「政治社會化와 政治教育」. 서울: 法文社, 1982.
- 金恒元. "政治社會化 動因으로서의 高等學校 教科書의 內容分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9.
- 金恒元外. "濟州道 大學生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4집, 1987.
- 朴泰岩. "社會科의 性格과 市民性 教育." 「대구교대논문집」 제19집, 1983.
- 沈義輔. "政治社會化의 課題와 政治教育의 方向." 「청주교대 논문집」 제23집, 1986.
- 李鍾烈. "高等學生의 政治態度發達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7.
- 印正鉦. "人性特性和 政治態度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7.
- 田淑子. "社會發展과 社會科教育의 基本方向." 「社會科教育」 20호, 1987.
- 鄭世九外. 「社會科 探究授業」. 서울: 教育科學社, 1982.
- 曹 翰. "政治社會化와 社會科 教育體系."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 車京守. "高等學校 社會科教育의 目標로서의 「市民의 資質」의 概念研究."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제28집, 1984.
- R. E. 도오슨外 共著. 「政治社會化」. 서울: 法文社, 1987.
- Almond, Gabriel A & Verba, Sidney. *The Civic Culture*. Boston and Toronto: Little, Brown & Company, 1963.

- Dynneson, Thomas S. & Gross, Richard.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Social Studies: Which is Which?" *The Social Studies*. Vol. 73, Sep/Oct, 1982.
- Easton, David & Dennis, Jack.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The American Political Review*. Vol. 61, March, 1982.
- Lane, Robert E. *Political man*. New York: The Free Press, Collier-Macmillam Ltd., 1972.
- Massialas, B. G.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forth Ed. N. Y.: Macmillam Company, 1969.
- \_\_\_\_\_. *Political Youth, Traditional Schools*. Englewood Cliffs, New Jersay: Prentice-Hall. Inc, 1972.
- Merriam, Charles E. *The Making of Citize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1.
- Meier, Arnold R. *A Curriculum for Citizenship*. Detroit: Wayne Univ. Press, 1952.
- Oppenheim, A. N. "Civic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Democracy." ed. Richard Rose, *Contemporary Political Soci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77.
- Robinson, John P., Jerrold G. Rusk & Kendra B. Heal.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Ann Arbor-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8.
- Willis, Benjamin C. et al. *Educating for American Citizenship*. Washington: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1954.



---

**Abstract**

A Study on the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 Do

*Kim Sung-mi*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undamental materials of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to find the course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rough examining the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 Do.

Analyzing a definition of the concept "citizenship" and established studies, the structure of the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 Do was classified as the domain of the consciousness of democratic principles, political attitudes and public spirits.

In these domains, the consciousness of democratic principles are classified Democratic Principles, Liberty and Equality, and political attitudes are classified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Trust, Sense of

Citizen Duty, and public spirits are classified the Spirit of the Order and the Responsibility.

The instrument of measurement was made twenty eight questionnaires which are composed of 10 items as the domain of the consciousness of democratic principles, and 14 items as political attitudes, and 4 items as public spirits.

The object of investigation was chosen high school and girls' high school in each region—In Cheju city, Seogwipo city, and the other region.

In each school, 1080 students, the total 18 classes which were chosen one class of one grade are the object of investigation. By the help of the teachers who teach social studies, the result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1035 students were collected after putting execution. In this results, except for 88 students who didn't answer all questions, 947 students were the object of analysis.

The collected materials were computerized, and statistics used in this study was analyzed through M(average), S.D(standard deviation), and F-test.

The result is the followings.

In analyzing the domains, 66.5% students of all objects responded in the affirmative, 23.5% students in the negative in the consciousness of democratic principles.

In political attitudes, political efficacy( 53.1%) and Sense of citizen duty ( 92.9%) were relatively high, but political participation(41.6%) and political trust(17.4%) were low. In public spirits, 32.9% students are affirmative, 58.1% students are negative.

The consciousness disposition was low.

In background variation, as a whole, high school students were higher than

---

girls' high school students in the citizenship.

The higher the grade is and the lower the standard of economic living is, the more negative the result of it shows.

In case that the vocation of parents is public official and teacher, their children are higher than any other student in the citizenship.



## 질 문 지

이 질문지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시민의식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답내용은 오직 학술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뿐 여러분의 성적이나 신상문제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김 성 미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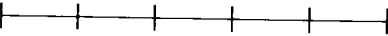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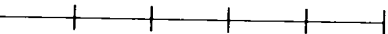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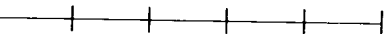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부모의 경제생활 정도는? ① 상 ② 중 ③ 하
4. 부모의 거주지역은? ① 시지역 ② 농·어촌지역
5. 부모의 직업은? ① 농업 ② 공업 ③ 상업 ④ 공무원 ⑤ 교사 ⑥ 기타

6.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정부 형태이다. 확실히 그렇다  
그렇다 같다. 깃다. 같다. 아니다.  
|-----|
7. 경제발전에 다소 지장이 있어도 민주주의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 |-----|
8.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훌륭하게 키워낼 자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

확실히 그런것 잘모르 아닌것 확실히  
그렇다. 같다. 겠다. 같다. 아니다.

9.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작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10.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법률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11. 지역 주민들은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12. 소수의 강력하고 유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한다.
13.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14. 나는 정부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모든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16. 때때로 정치나 정부는 대단히 복잡해서 나같은 학생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
17. 국민들에게는 투표하는 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18. 국민이 무엇이든 정부가 하는 일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확실히 그런것  
그렇다. 같다. 잘못  
아닌것  
확실히  
아니다.

19.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지 않다. 
20.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에서 세계의 정치 형편이나 나라안의 정치형편에 대해 열심히 듣고 본다. 
21. 어른들과 자주 정치문제를 토론하는 편이다. 
22. 친구들과 정치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편이다. 
23.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청렴결백하다. 
24.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때는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 들인다고 믿고 있다. 
25.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26.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질것 같이 생각될 때는 투표할 필요가 없다. 
27. 많은 사람이 투표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한분쯤은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28. 사람들은 정치를 맡아하는 정치인이나 나라살림을 맡아하는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확실히 그런것 같고 그렇지 않다. 확실하  
고렇다. 같다. 겠다. 같다. 아니다.

- 29. 사람들은 나라의 정치형편을 잘 모르  
고 있어도 좋다. |-----|
- 30.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질서를 잘 지킨  
다. |-----|
- 31. 우리나라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이 손해를 본다. |-----|
- 32. 자기가 맡은 일은 꼭 실천한다. |-----|
- 33.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의식이 강하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